



신록사 전담은 강을 타고 오고가는 배들에서 잘 보일 수 있는, 동대 역할을 한 표시 탑이었다.

“한강 오가는 배들의 등대”

신록사 전담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경기도 여주의 신록사는 위치부터 묘한 곳에 자리잡았다. 한강의 중류-이물 여강이라 부르고, '여주'라는 고을 이름의 근원이 되었다. 절벽 위 땅에 가람의 터를 잡은 강변 사찰인 것이다. 교과서적인 풍수살을 따르자면, 큰 강변이나 바닷가는 중요한 건축이 들어설 땅이 되지 못한다. 땅에 비해 물의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음기가 너무 강해서, 음양의 조화가 흐트러질 우려가 높으며, 건물의 앞을 막아줄 적절한 안산을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신록사의 위치는 누각이나 지고 경치를 즐기며 노는 곳이지, 맑은 대웅들이 거거하면서 살 곳은 되지 못한다. 신성한 가람이 자리잡을 곳은 아니다.

도상에서 추적해 보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세워졌음을 알 수 있다. 고속도로 휴게소들 사이의 거리가 30분~1시간 간격으로 떨어져 있듯이, 한강을 오르내리는 배들의 속도도 감안하여 대략 반나절 내지 한나절 거리에 절들이 위치하고 있다. 그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강변 가람들에는 자신의 위치를 나타내고 안내할 상징물들이 필요했다. 승종사와 같이 산 중턱 높은 곳에 위치하여 가람 자체가 상징물이 되기도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것은 높은 탑을 강변에 세우는 것이었다. 신록

국제활동 나눔스님 영향 중국 서안풍 벽돌탑 세워

사에는 탑이 두 개 있는데, 하나는 국악보전 앞 마당 가운데 세워진 섬세한 대리석탑이고, 다른 하나는 강변 동대 절벽 위에 세워진 화려한 모양의 벽돌탑이다. 특히 이 벽돌탑 때문에 신록사는 속칭 '벽돌(壁寺)'라는 이름으로 불리워졌다. 왜 가람의 구성과는 관계없이 동떨어진 강변에 벽탑이 서있는 것일까? 그런데, 비단 신록사 뿐 아니라, 충주 중앙탑 절터 역시, 바로 강변에 높이 터를 뚫어주고 7층의 중앙탑을 세웠다. 원주 흥법사지의 석탑도 강에서 잘 보이는 곳에 세워졌다. 이 탑들의 공통점은 강을 타고 오가는 배들에서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잘 보일 만큼의 높이로 세워졌다는 점이다. 신록사 벽돌탑은 이와같은 목적으로 세워진 표시탑, 다시 말하면, 강변의 등대였던 셈이다. 물론 탑보다는 낮게 역할했던 등대였다. 그 형태는 우리나라에 있는 일반적인

벽돌탑들과는 다른 모습이다. 현존 벽돌탑(전담)들은 주로 안동을 위시한 경북 북부지역에 분포하는데, 일반적으로, 탑신의 지붕부분이 11층 정도의 벽돌부로 이루어져 비교적 강하게 돌출되어 있다. 그러나 신록사 벽탑은 지붕부가 5층 정도의 약한 돌출부로만 떨어져, 한국 벽돌탑이 보기보다는 중국 서안에 있는 대안탑과 같이 중국풍에 가깝다. 탑 층수도 6층으로 약속되어서 원형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을 정도로 비형식적이다.

신록사는 고려말에 중흥된 적이 있었는데, 당대 최고의 스님이었던 나옹(懶翁) 화상이 이곳에서 열반한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나옹은 중국에 유학하여 지공(指空)과 평산(平山)에게 법을 전해받아, 인도와 중국의 조사 선맥을 한몸에 모은 국제적인 선사였고, 고려 공민왕의 고문으로 활동했던 큰 스님이었다. 양주 회암사에 주석하면서 크게 불법을 일으키니 그의 제자 가운데 한명이 바로 조선 건국에 깊게 관여한 무학(無學)이었다. 그러나 산이 높으면 그 그림자도 깊은 법, 부패한 당시 불교계와 정계의 무리들은 나옹을 탄핵했고, 급기야 회암사에서 추방되어 밀양 영인사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당시 경기지방에서 양념으로 가는 일반적인 길은 한강을 거슬러 올라가 남한강 상류인 충주에서 재를 넘거나, 단양에서 죽령을 넘는 것이었다. 나옹 일행 역시 한강을 배로 올라갔는데, 이미 심신이 쇠약해진 나옹의 건강 때문에 여주 강변의 신록사에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그만 그 짧은 휴식에도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나옹은 그만 신록사에서 열반하게 된다. 화장을 하고 나니 550과나 되는 사리가 수습되었다. 나머지 유골을 양주 회암사로 운구하여 가려는데, 극심한 기증으로 수량이 적어 배를 띄울 수 없는 지경이었는데 갑자기 강에 불이 부는 이적이 나타나 무사히 배를 띄울 수 있었다는 기록도 있다. 나옹 일행이 올 때나 갈 때, 모두 한강의 뱃길을 이용할 정도로, 신록사는 수문 교통로 상 중요한 지점이었다. 여기에 세워진 등대용 탑(벽탑)이 중국풍을 띠고 있는 것도 나옹 일행의 국제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 지킴이 나선 스님들

해방이후 '개발 제일주의' 정책아래 우리나라의 산천이 많이 훼손됐지만, 자연이 이만큼이나 유지되어 온 것은 사람의 역할이 컸다. 과거에는 사찰에 산감(山監)이란 소임을 둘 정도로 산천을 소중히 여겼다. 이처럼 '심 청정, 국토 청정(心淸淨 國土淸淨)'을 앞장서 실천하고 있는 스님들이 최근 환경운동과 자연보전에 적극 나서고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스님들이 다양한 환경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면서 잇달아 환경관련 표창을 받는 등 시민들의 호응도 얻고 있다.



대자연보전환경협회 회장 성타스님(불국사 주지)과 조계종 문화부장 해자스님이 지난 6월과 7월 '환경의 날 국민포장'과 '전국자연보호중앙회 환경보호대상'을 각각 수상한 것도 오랜 기간의 환경운동 결과 얻어진 성과였다. 성타스님은 93년 同 협회를 설립한 이래 녹색에너지 가족운동, 녹색에너지 교통운동 등 생활환경운동을 이끌고 있으며, 해자스님은 사찰을 통한 환경의 소중함과 자연보전 계승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 성타스님 녹색에너지 생활화 운동
- 수경스님 지리산땀 반대운동 주도
- 진옥스님 섬진강 생태계 보호 앞장
- 장곡스님 계룡산 보전운동 이끌어



요즘 불교계의 최대 환경이슈인 지리산 살리기 운동과 관련해서는 지리산의 근본도량인 실상사 스님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인드림생명공동체 상임대표 도법스님(실상사 주지)은 지난해 8월 지리산 주변 80여 종교·시민·환경단체와 함께 '지리산을 사랑하는 열린 연대'를 구성, 지역생명·환경운동에 앞장서면서 유전자조작식품 반대운동도 벌이고 있다. 특히 실상사 수경스님은 수좌출신으로서 지리산살리기팀 백지화방불교연대 상임대표를 맡아 불교계와 지역주민, 환경단체의 지리산땀 반대운동을 의욕적으로 이끌고 있다.

한강을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은 여수여천환경운동연합 및 전남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을 맡아 지리산·섬진강 생태계 보호 및 영광·여수지역 반핵운동을 주도하고 있다. 또 공주 갑사 주지 장곡스님은 '계룡산 보전 시민모임' 공동의장을 맡아 계룡산자연사박물관·야영장·국도 건설 반대운동에 나서고 있으며, 통영 용화사 주지 선곡스님은 불교·시민·산악인단체들로 구성된 '비록산 케이블카 설치 반대 모임'을 이끌면서 미륵성지를 수호하고 있다. 그간 사회복지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해 온 비구니 스님들도 이제 환경운동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 올해 초 고성산불 지역에 풀씨 심기 활동을 펼친 불교자연봉사연합회 회장 성덕스님은 매년 수천 그루의 '나무 심고 기르기' 운동을 펼치고 있으며, 수해지역 오물처리 등 환경정화 활동도 수시로 펼치고 있다. 공주 동학사 주지 일연스님은 계룡

산 환경 훼손이 심각해지자, 국도1호선대북특별위원회의 공동대표로 나섰다. 이같은 스님들의 적극적인 환경운동은 불자는 물론 시민들의 '자연 사랑'의 분보기가 된다는 점에서 더욱 활성화돼야 한다는 것이 환경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의견이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전통사찰의 스님들은 당국의 문화재 보수비 지원과 민원 허가 건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것을 우려해 적극적인 환경운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가칭)'조계종 환경위원회' 김용구 간사는 "조민간 환경위원회가 출범기구로 구성되면 제도 및 재정적 지원이 가능해져 스님들의 환경운동이 더욱 활발해 질 전망"이라면서 "환경운동은 몇몇 스님들만이 관심을 갖고 활동할 것이 아니라 모든 스님, 모든 불자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opia.com)

갈월사 영탑(靈搭)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갈월사 영탑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으로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영탑허가번호 양평군 제2000-3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영탑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 시종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많은 영구이용을 바랍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기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문의: 031)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홈페이지: http://galwolsa.bz.co.kr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보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 자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영속한 인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